

정보보호포럼



박은하 정보보호포럼 간사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과장



1. 머리말

무선 기술에 바탕을 둔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단말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ICT 기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그만큼 편리성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해킹, 정보 유출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정보보호는 공공, 금융, 제조, 의료, 서비스 등 모든 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사이버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쟁력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도 정보보호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매년 늘리고 있다. 정보보호 체계 구축과 시스템 및 S/W 도입을 확충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보호는 스마트폰, 태블릿PC,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고도화된 분석 등 IT 산업 발전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무선네트워크 보안 및 통합접근관리와 관련된 제품과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안컨설팅(안전진단, 기반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개발도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보호 표준화는 보안을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ICT 기술과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정보보호포럼은 산학연 정보보안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국제 표준화 및 기술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여 도출한 표준 기술을 국내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하고, 제정된 표준이 적용된 기술을 솔루션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강화된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정보보안 기술의 산업 활성화 및 유관 표준화 추진 포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기술, 스마트 그리드/스마트폰 보안 기술, 개인정보보호 표준 프레임워크 등을 ITU-T 등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내 정보보호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간 상호연동성 증가로 국내 기술 기반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관련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표준화 및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며,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사실 표준화를 추진하는 민간 포럼 등에 의견제시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2. 현황 및 활동

2.1 창립 목적 및 필요성

국제 공식 표준화기구(ITU-T, ISO/IEC JTC1), 사실 표준화기구(RAISE, IETF)의 국제 사실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국내 산업체 단기 표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표준 및 정보통신단체 표준개발을 위한 국내표준개발 플랫폼 역할을 목표로 한다. 정보보

호 관련 국제 표준화 및 포럼/사실표준화기구에서 국내 산업체 요구사항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정보보호 표준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활동이 필요하다.

본 포럼은 TTA가 지원하는 표준화 포럼 지원 사업(과제책임자: 고려사이버대 박대하 교수)에 의해 설립되었다.

2.2 조직구성 및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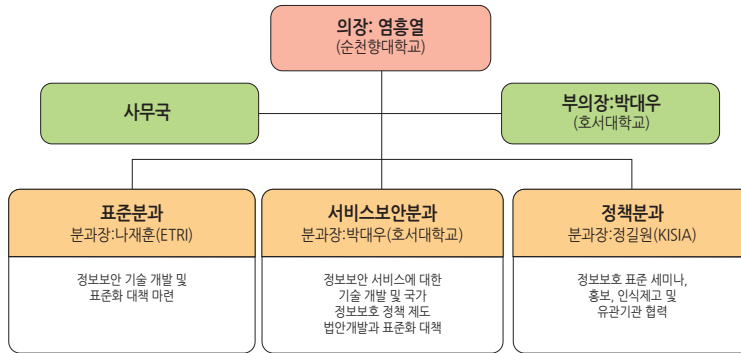
정보보호포럼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이하, 각각의 정보보호 분과(표준분과, 서비스보안분과, 정책분과)를 통해 운영한다. 각 분과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표준분과: 정보보안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대책 마련
- 서비스보안분과: 정보보안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국가 정보보호 정책제도, 법안개발과 표준화 대책 마련
- 정책분과: 정보보호 표준세미나, 홍보, 인식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마련

기존의 정보보안산업표준포럼에서 진행한 내용은 표준분과에서 담당하고, 해킹기술포럼에서 진행한 내용은 서비스보안분과에서 담당하며, 포럼 전반적인 홍보는 정책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에서도 표준개발에 참여해 표준제안 및 문제점을 공동으로 연구하며,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포럼의 주요 활동 대상이 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등



[그림 1] 정보보호 포럼

<표 1> 정보보호포럼 주요 활동 계획

개최 기간	워크숍/세미나	주요 내용
2014. 5	정보보호포럼 총회	통합 포럼 출범 등
2014. 5	정보보호포럼 워크숍	스미싱 및 기업의 표준화 활용전략 등
2014. 9	클라우드보안 워크숍	클라우드보안 등
2014. 11	모바일보안 워크숍	개인정보보호 및 모바일 보안 등

신규 ICT 서비스 국내의 표준화

- 개인정보보호 표준 및 ITS/SDN 보안 프레임워크 등 국내의 표준화
- 정보보호준비도 국제 표준화 지원
- 스마트환경에서의 스팸, 해킹공격에 대한 해킹보안 표준화
- 금융거래와 침해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대책 기준 및 이용자보호 표준화
- 정보보호 및 표준화 관련 정책 제안

2.3 포럼의 주요 활동 및 실적

현재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 작업 및 정책수립은 동 포럼의 회원들이 주로 맡아 진행한다. 국제표준화 작업은 모바일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TU-T SG17과 ISO/IEC JTC1/SC27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국제표준과

부속서 채택을 꾀한다. 최근 SG17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 사이버보안 분야의 국제표준 2건이 채택돼 표준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앞으로 모바일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에 대한 표준화 연구와 작업을 통해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힘쓸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은 CJK(중국, 일본, 한국) 정보보호 워킹그룹(WG)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TTA가 속해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보호포럼은 TTA와 함께 CJK 정보보호 워킹그룹에서 활동하며 국제표준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보안, 모바일 보안, 자동차 보안 등에 대해서는 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표준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보보호 포럼은 아시아지역 정보보호 포럼(Regional Asia Information Security Exchange)에서 사실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따로 활동해오던 정보보안산업표준포럼과 해킹보안포럼이 정보보호포럼으로 통합되어 그에 따른 국내외 정보보호 표준화 추진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던 정보보안산업표준포럼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에서 사무국을 맡아 산업계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해킹보안포럼은 국내 표준화를 이끌어왔으며 한국해킹보안협회에서 사무국을 담당해왔다.

새로 시작하는 정보보호포럼 통합을 계기로 국제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주요 표준화 활동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안 이슈를 고려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안 표준화 아이টে을 발굴하고, 산학연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개발된 표준들은 정보통신단체 표준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정보보호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로 국내 기술 기반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용성 있는 핵심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규 IT융합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산업체 수요를 바탕으로 표준화 아이টে이 발굴되어야 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표준 개발 및 의견수렴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포럼은 산학연 전문가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고, 협력을 통하여 표준안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보보호 핵심기술 표준 개발 및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관련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표준화 및 최신 기술의 동향 파악을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며,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사실 표준화를 추진하는 민간 포럼 등에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체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분야 표준화 포럼으로 거듭난 정보보호포럼은 산업체 수요를 만족하고, 표준 특허를 창출하며, 모든 표준 참여주체의 협력을 가능케하는 국내외 표준화 추진을 위한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